

제 2 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 NPO



동아시아연구원

<조사협력>

日本 : 世論総合研究所 한국 : 한국리서치

2014 年 7 月

< 조사개요 >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EAI 와 일본의 공인 NPO 인 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4 년 5 월부터 6 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2014 년 5 월에 창설된 한일 민간대화(제 2 회 한일미래대화: 2014. 7.18 개최예정)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측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19 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6 월 10 일부터 6 월 25 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인터뷰 방식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4 명으로, 회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8.9%, 중졸이 7.3%, 고졸이 34.4%, 대학재학/중퇴(전문대학 포함)가 5.2%, 대졸이 31.8%, 대학원 졸이 2.5%였다.

일본측의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 세 이상 남녀 (고교생을 제외) 를 대상으로 5 월 31 일부터 6 월 22 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0 명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중 졸이 12.4%, 고졸 48.4%, 단기/전문고졸이 19.3%, 대졸이 17.3%, 대학원 졸이 1.2% 였다.

본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동아시아연구원과 言論NPO는 양국 전문가(有識者)에 대한 설문 조사를 6 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쳐 양국 국내에서 실시했다. 한국측은 약 5000 명의 지식인에게 국민여론조사에서 발췌한 25 개 문항의 질문을 메일로 배포하여 424 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한국 측은 EAI 회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393 명이 응답하였다. 일본측은 과거 言論NPO가 진행한 각종 활동 등에 참가한 바 있는 일본내 유식자 등 약 6000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633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응답자들은 일본 및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간주하여, 한일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완하고자 했다.

1. 한일국민 상호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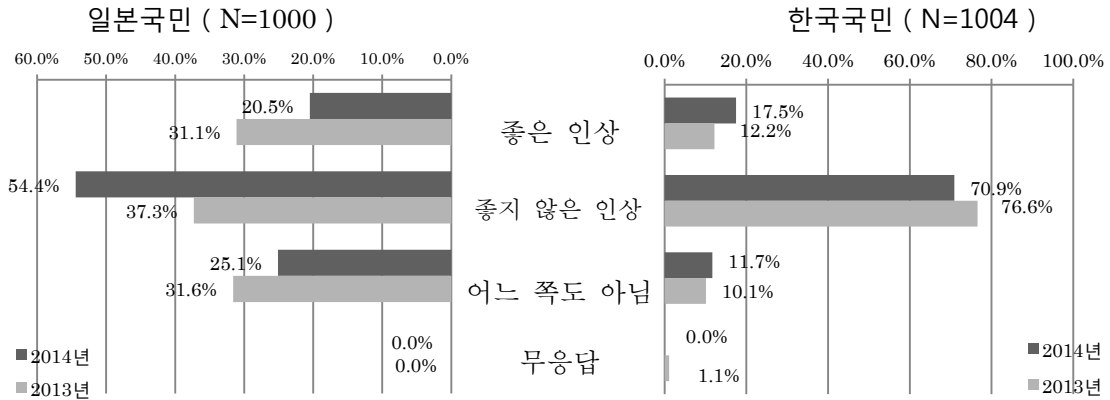
1 - 1 . 상대국에 대한 인상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70%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인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인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라고 답한 한국인은 올해 17.5%로 작년보다 5.3% 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쁘다” 또는 “대체로 나쁘다”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작년보다 5.7% 포인트 감소한 70.9%로 아직 70% 이상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라고 답한 일본인은 20.5%로 작년보다 10.6% 포인트 감소했으며 “나쁘다” 또는 “대체로 나쁘다”라고 답한 일본인은 17.1% 포인트 증가한 54.4%로 과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좋은 인상은 “좋다”과 “대체로 좋다”를, 나쁜 인상은 “나쁘다”와 “대체로 나쁘다”를 각각 더한 수치입니다.

1 - 2 .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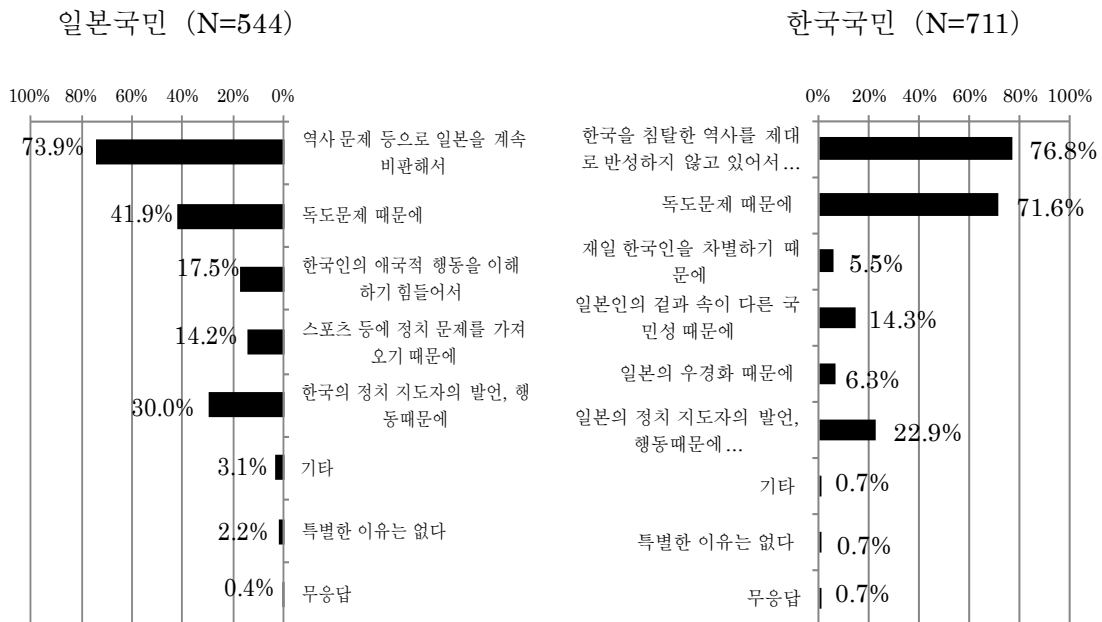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 (2개 중복응답)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70%를 넘었으며 다른 이유를 꼽은 응답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정치지도자의 발언, 행동”을 꼽은 응답자도 20%를 넘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는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을 비판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가 73.9%를 기록해 작년 55.8%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는 “일본인은 친절하고 성실하니까”와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에 달했고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를 선택한 응답자는 20% 미만으로 긍정적 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의 경우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에 대한 관심”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이유로 선택한 응답자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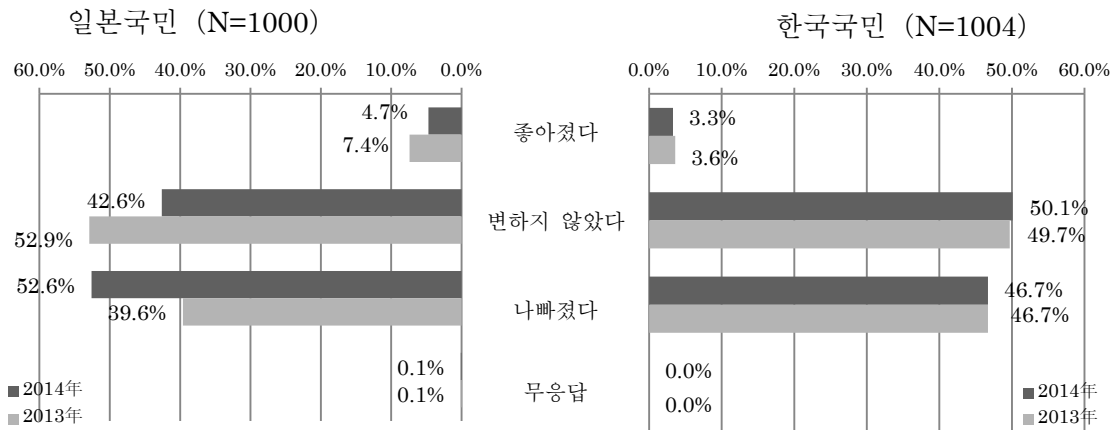


1-3. 작년 대비 상호인식 변화

한국인의 40%이상, 일본인의 50%이상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악화 됐다”고 응답.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와 대체로 나빠졌다를 합한 수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46.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 작년 대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2.6%를 기록해 작년보다 13% 포인트가 증가했다. 한일 양국 상호인식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의 경우 작년 49.7% 대비 50.7%로 큰 차이가 없었고, 일본의 경우 작년 52.9%에 비해 42.6%를 기록해 다소 줄었다.

【도표 3 지난 1년간 인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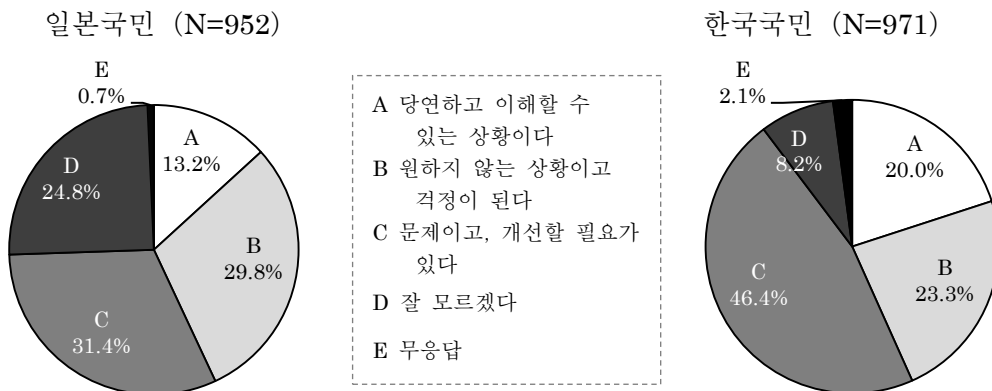
※좋아졌음은 “매우 좋아졌다”와 “대체로 좋아졌다”를, 나빠졌다는 “매우 나빠졌다”와 “대체로 나빠졌다”를 각각 더한 수치입니다.

1 - 4 . 한일국민 상호인식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

한국인의 약 70%, 일본인의 60% 정도가 악화 되는 양국 국민감정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 또는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자 대상).

한국인은 양국간의 국민감정 악화를 23.3%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된다”라고 답했으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4%가 “문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해 총 69.7%가 우려되는 문제로 인식. 일본인의 경우 29.8%가 현재의 양국 국민감정 악화 상황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31.4%가 “문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한국인, 일본인 각각 20%, 13.2%가 현 상황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응답했다.

【도표 4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지난 1년간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 「대체로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2. 한일국민 상호인식의 이해 기반

2 - 1 . 상대국에 대한 이해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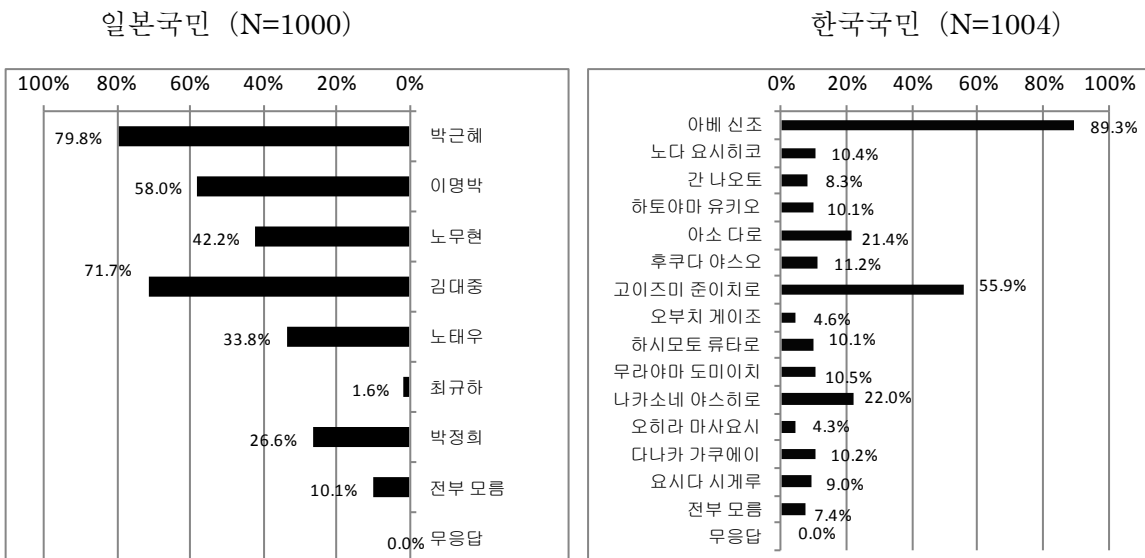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영토문제와 역사,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와 최근 사건 등이 상대국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3개 중복 응답).

한국인들은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위안부문제”(55.8%)에 이어 “독도문제”(36.7%),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24.3%), “아베신조 수상”(19.7%) 등을 꼽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주로 한일간 갈등 요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요리”, “고품질 제품”, “후지산”, “벚꽃”,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떠올리는 한국인은 10%정도에 그쳤다. 한편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한국요리”(46.0%), “한류드라마, 케이팝(K-Pop)”(36.3%), “세월호사건”(38.2%) 등을 떠올리고 있다. “독도문제”(36.7%)와 “위안부문제”(31.0%)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관심도를 보이는 등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는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알고 있는 상대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임진왜란”(86.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한일강제병합”, “제 2 차세계대전” 등을 꼽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본인들은 “서울올림픽”(67.0%), “한일 월드컵”(63.0%) 등을 선택하였고, “한일강제병합”을 선택한 응답자는 작년보다 14% 포인트 증가했다.

서로 알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인에 대해서 한국인 응답자의 89.3%가 “아베신조 총리”를 안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23.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일본인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가 작년 51.9%에서 올해 79.8%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역대 총리로 “코이즈미 준이치로 총리”(55.9%)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해 10% 안팎의 인지도를 보여준 반면, 일본인들의 경우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5 상대국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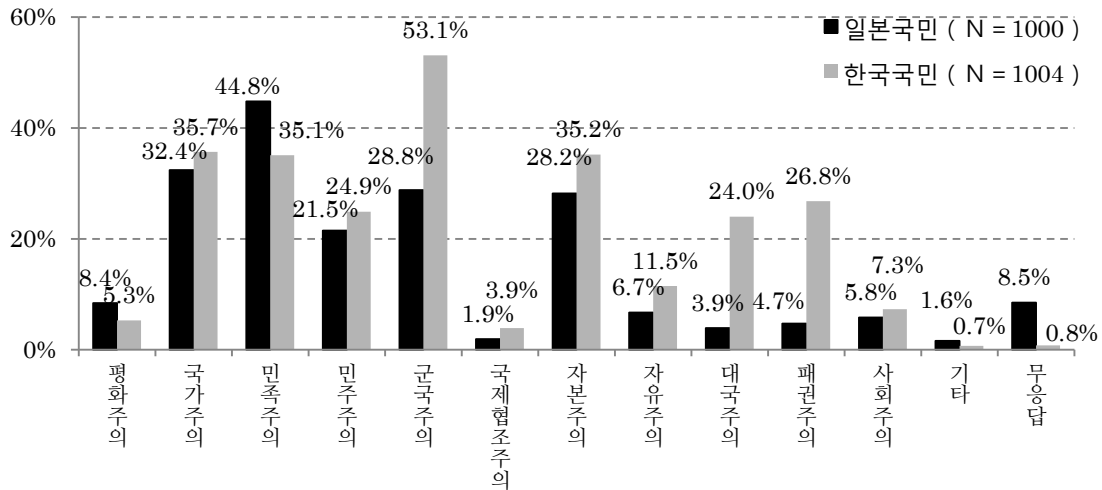


2 - 2 . 상대국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상대방의 이념·체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일본을 “국국주의”로, 일본인들은 한국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3개 중복응답).

상대국의 사회,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53.1%가 현재의 일본을 “군국주의”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증가한 수치. 또한 “국가주의”는 35.7%, “민주주의”는 24.9%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전쟁 후 세계적으로 표방해 온 “평화주의” 및 “국제협조주의”를 꼽은 응답은 각각 5.3%, 3.9%을 기록해 10%에 못미쳤다. 한편, 일본인들의 44.8%는 한국을 “민족주의”를 떠올렸으며 “국가주의”를 꼽은 응답은 32.4%, “민주주의”를 꼽은 응답은 21.5%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6 상대국의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2 - 3 . 상대방의 국민성을 어떻게 보나

일본인은 한국인을 “완고”하지만, “근면, 이기주의, 호전적, 믿음이 안감”, 한국인은 일본인을 “근면, 친절, 창조적” 하지만, “이기주의”.

상대방의 국민성에 대해서, 한국인의 70% 이상은 일본인을 “근면”(75.6%), “친절”(70.4%)하다고 보고 있으며 40% 정도는 일본인을 “이기주의”(48.9%), “창조적”(42.1%)라고 느끼고 있다.

일본인은 10 개 질문 중 9 개에서 “어느 쪽도 아니다”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의 국민성을 확실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완고”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1.9%의 일본인이 한국인을 “완고” (“상당히”, “대체로”의 합계)하다고 인식 함.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이기주의”(44.7%), “근면”(42.9%), “호전적”(41.3%), “믿음이 안감”(41.1%)다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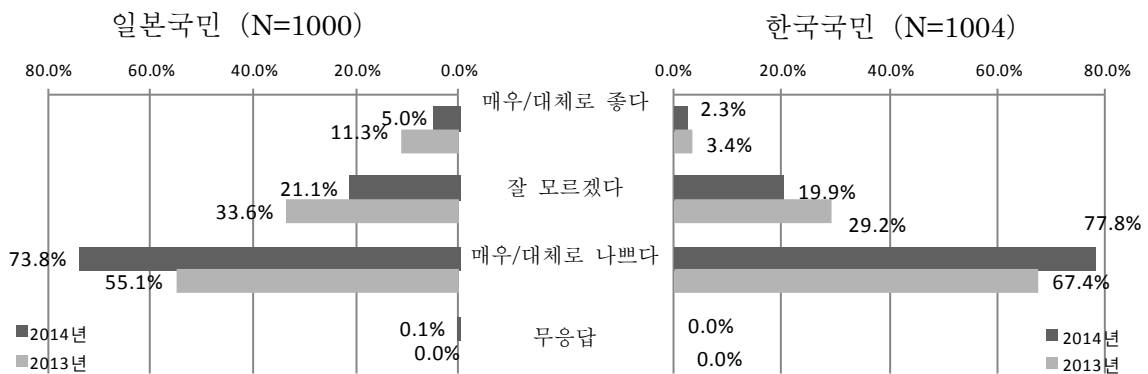
3.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3 - 1 . 현재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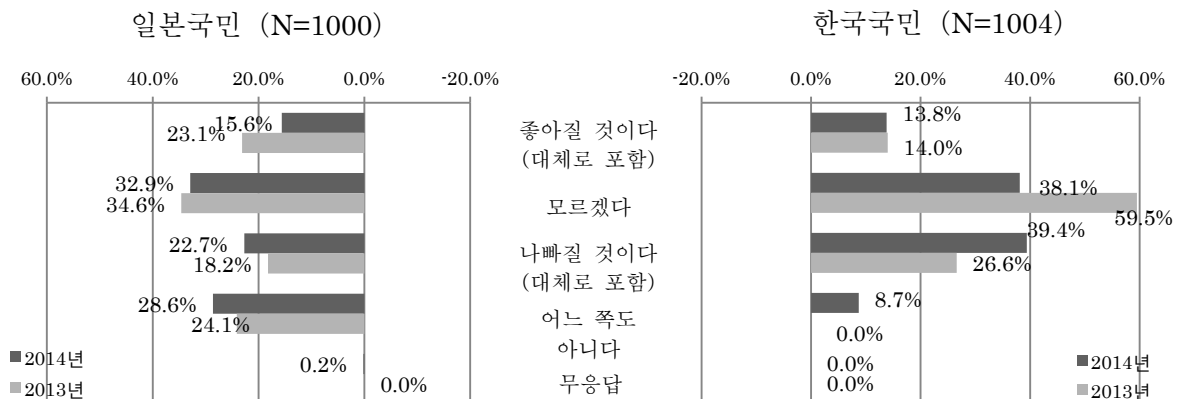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작년보다 18.7%포인트, 한국인은 10.4%포인트 증가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국인 중 “좋다”는 응답(매우,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은 2.3%(작년에는 3.4%)이며, “나쁘다”는 응답(매우,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은 작년 조사에서 67.4% 였지만 올해 77.8%(동)로 증가 했다. “좋다”고 보는 일본인 5.0%(작년에는 11.3%). 반대로 “나쁘다”는 73.8%(동)이며 작년 55.1%보다 18.7%포인트 증가 했다. 지난 일년 동안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인 중 한일관계가 “악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3.2%(작년 53.9% , 동)로 나타났다. “악화 되었다”고 하는 일본인은 68.1%(동)이다. 또한,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국인이 40% 정도이며, 일본인도 30%를 넘었다. 한편, 한국인의 40%정도는 “더욱 악화 된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12.8%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도표 7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



【도표 8 향후 한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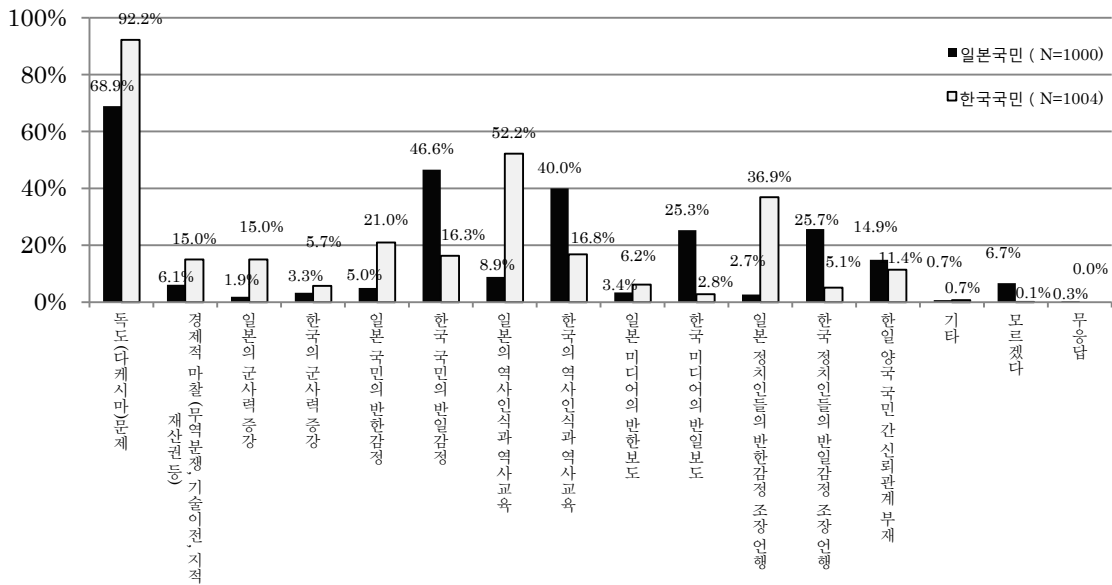


3 - 2 .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양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요인은 “독도(다케시마)문제”, 일본은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꼽은 응답이 두번째(3 개 중복응답)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양국에서 가장 많이 꼽은 응답은 “독도(다케시마)문제”이다. 한국인의 92.2%(작년 94.6%), 일본인의 68.9%(작년 83.7%)가 선택했다. 한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으로 52.2%(작년 61.1%)로 과반을 넘었다. 일본인이 두번째로 많이 선택한 항목은 “한국국민의 반일감정”으로 46.6%(작년 55.1%)가 응답했고, “한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응답이 40.0%(작년 33.8%)로 나타났다.

【도표 9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저해 요소】



3 - 3 . 한일관계는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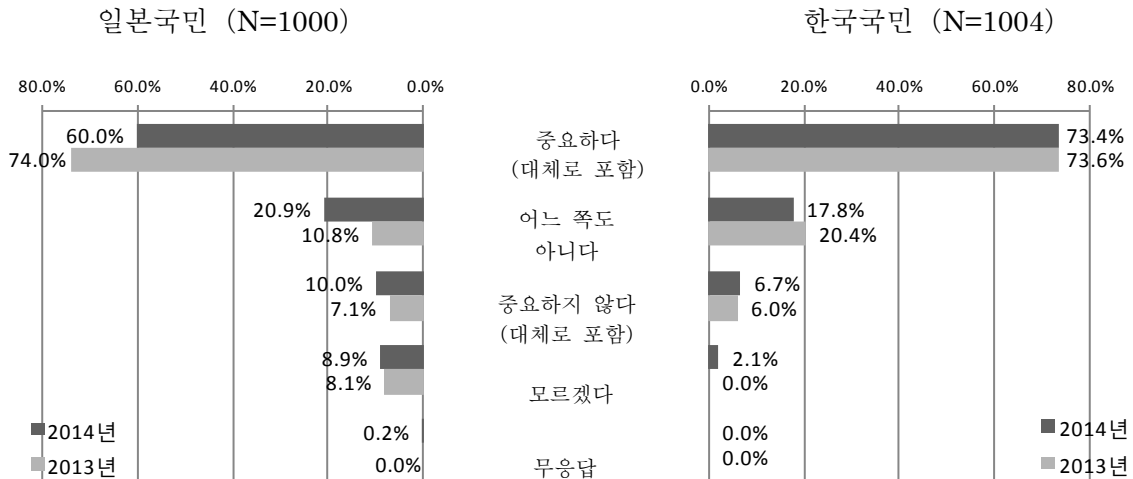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70%, 일본인은 60% 넘었다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대체로 중요하다”를 포함, 이하 동) 응답자는 한국인의 73.4%, 일본인의 60.0%로 나타났다. 일본은 작년 조사에서의 74.0%였는데 올해 14%포인트 감소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를 포함해도, 일본인의 10.0%, 한국인의 6.7%에 그쳤다.

“중요하다”고 꼽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가 60.4%로 가장 많았고, “서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에 향한 협조를 위한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45.0%), “경제, 산업적 차원에서 상호의존관계가 강화되고, 많은

공통이익이 있기 때문에”(42.9%)이라는 순이었다. 일본인도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가 60.3%로 가장 많았다. “서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에 향한 협조를 위한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45.5%), “같은 아시아의 국가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42.2%) 순이었다.

【도표 10 한일관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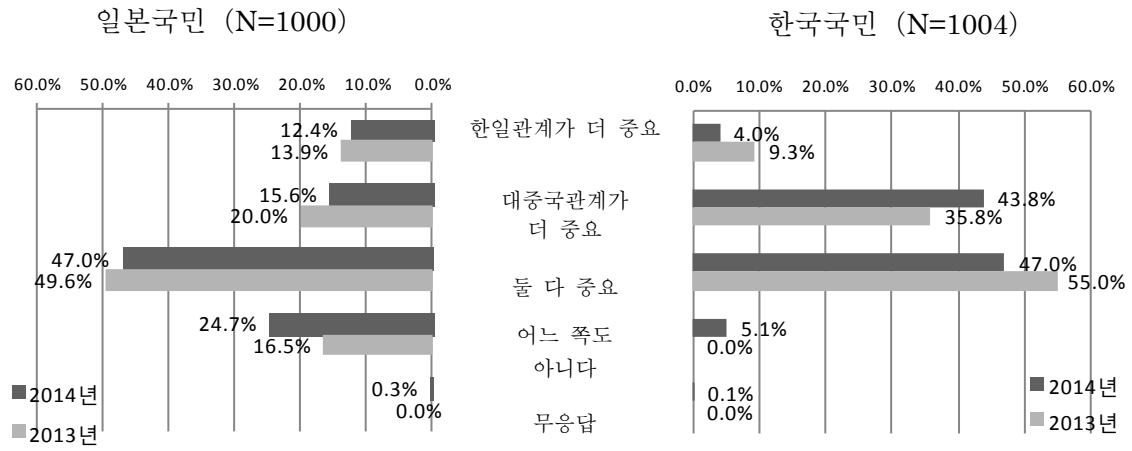
3 - 4 . 중국과 비교한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그러나 한국인은 일본보다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며, 대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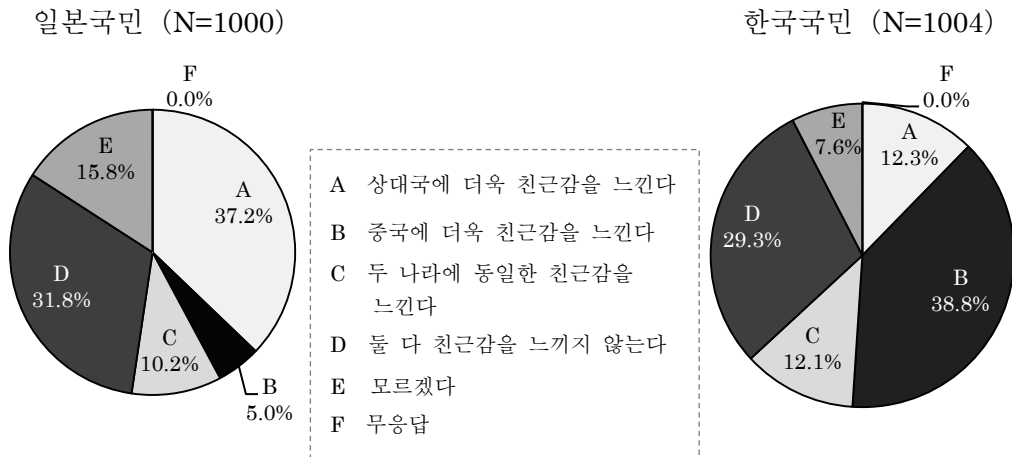
한일(일한)관계와 한중(일중)관계 중 어느 쪽이 더욱 중요한가에 대해서 일본인은 47.0%(작년에는 49.6%), 한국인도 47.0%(작년 55.0%)가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43.8%로 작년의 35.8%보다 증가했다.

또한 상대방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일본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로 답한 사람은 12.3%(작년 13.5%)였지만 “중국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은 38.8%(작년 36.2%)로 가장 많았다. 일본인은 “한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하는 사람이 37.2%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의 45.5%보다는 감소 했다. 일본에서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어느 쪽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다”로서 31.8%에 달했다.

【도표 11 한일관계와 대중국관계의 중요성】



【도표 12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4. 정부간 외교와 민간교류

4 - 1 . 정부간 외교는 기능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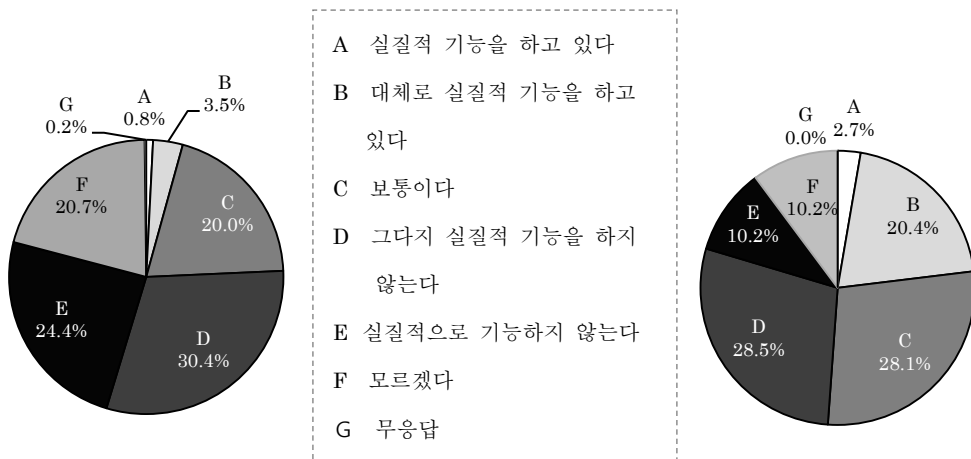
한일간의 정부간 외교, 한국인은 40%이상, 일본인은 50%이상, “기능 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한일양국간에서 정부간 외교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대체로”도 포함)의 평가가 54.8%로 받을 넘었다.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대체로”도 포함)가 38.7%로 가장 많았다.

【도표 13 한일 정부 간 외교의 기능, 효과】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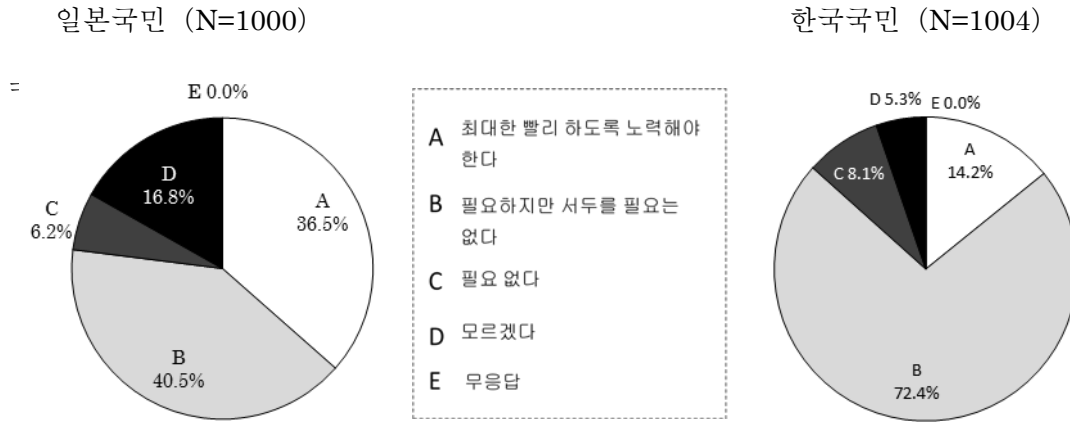


4 - 2 .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논의 의제에 대해

양국 국민의 80%정도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70%가 “필요하지만 서둘 필요는 없다”고 응답

일본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민의 80%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서둘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일본인은 40.5%, 한국인은 72.4%로 가장 많았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양국 국민의 10%이하이다. 또한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로 한국인은 “역사인식문제와 위안부문제”를 꼽은 응답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독도(다케시마)문제”가 70.3%. 한국인들이 “역사”, “영토” 문제해결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일본인은 “양국의 관계개선을 향한 폭넓은 토론”이 35.6%로 가장 많았다.

【도표14 정상회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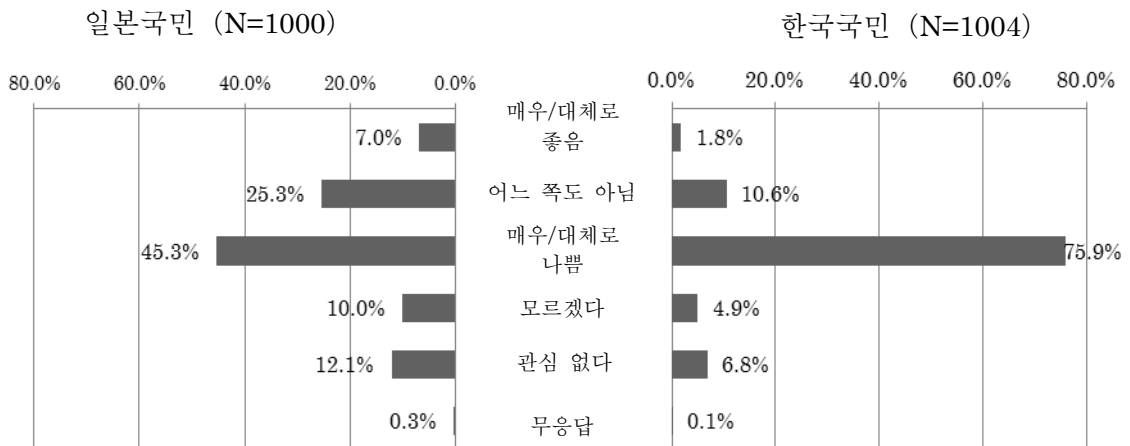


4 - 3 .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양국민이 상대국의 정상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한국인의 아베수상에 대해 “나쁜 이미지”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상대국의 정상에 대한 인상에서는 박대통령에 대해 “매우 나쁜 이미지”, “대체로 나쁜 이미지”이라는 응답이 일본인의 45.3%, “매우 좋은 인상”, “대체로 좋은 인상”이라는 응답은 7.0%였다. 한국인은 아베수상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상”, “대체로 나쁜 인상”이라는 응답이 75.9%였고, “매우 좋은 인상”, “대체로 좋은 인상”은 1.8% 밖에 되지 않았다.

【도표 15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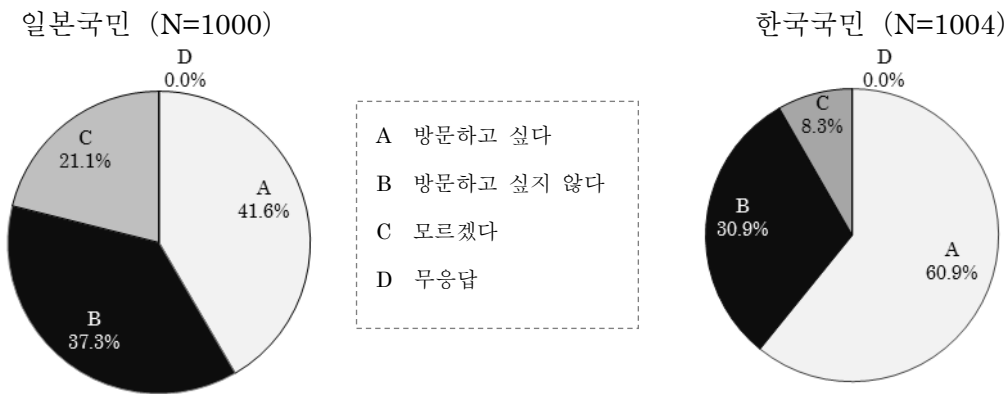


4 - 3 .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상대국에 가고 싶다는 일본인은 40%, 한국인은 60%를 넘었다.

상대국에 “가고 싶다”고 한 일본인은 41.6%(작년 47.7%), 한국인은 60.9%(작년 58.0%)이며, 한일 둘다 상대국 방문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다”는 답도, 일본인의 37.3%(작년 33.9%), 한국인은 30.9%(작년 29.5%)로 공히 30%정도 수준이었다.

【도표 16 상대국 방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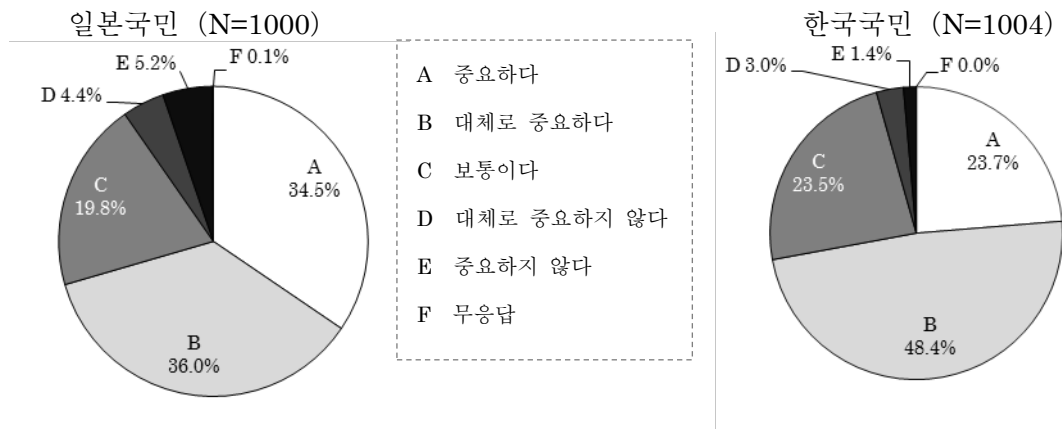


4 - 4 . 민간교류의 중요성 인식

한국인, 일본인 모두 70%이상이 “민간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인식

한일의 민간교류에 대해서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도 포함)의 인식은 한국에서는 72.1%(작년 75.2%)로 일본에서는 70.5%(작년 74.7%)로 70%이상이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이 양측 모두에서 높았다.

【도표17 민간교류의 중요성】



5. 한일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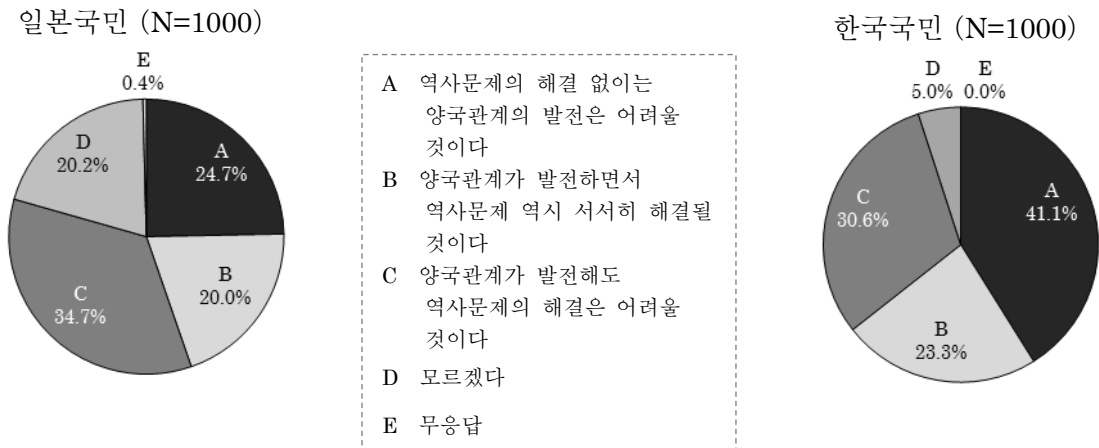
5 - 1 .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민의 인식

한일양국 역사인식문제의 해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증가, 한국에서는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가장 많다.

역사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1.1%(작년 41.5%)로 가장 많았다.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 인식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은 23.3%였다. 일본에서는 “양국 관계가 발전해도,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응답이 34.7%(작년 32.1%)로 가장 많으며,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견해는 20.0%(작년 23.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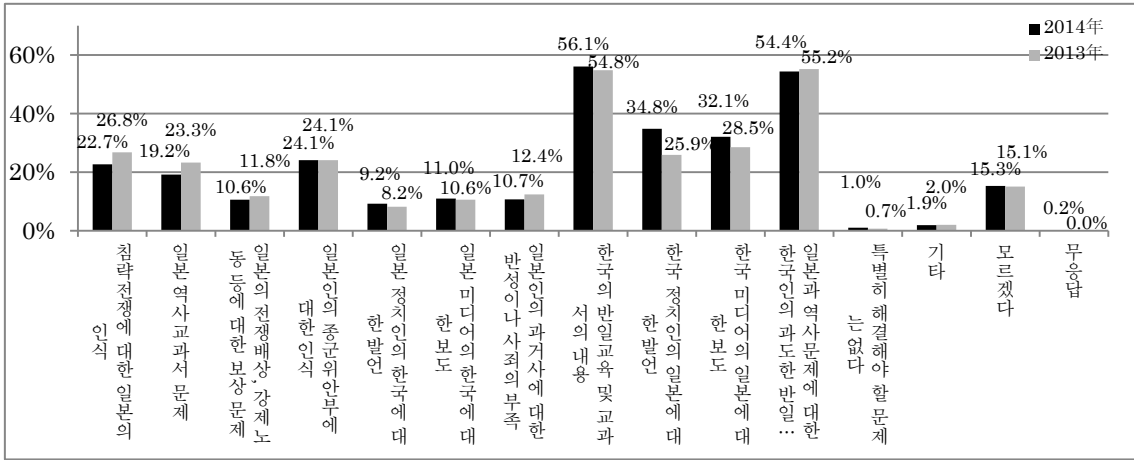
해결해야 하는 역사문제로 한국인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의 답이 81.9%(작년 72.4%)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일본인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이 71.6%로 작년의 42.0%에 비해 증가했고,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지적한 응답도 70.6%(작년 51.1%)로 증가했다. 일본인은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이 56.1%(작년 54.8%)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행동”을 꼽은 응답이 54.4%(작년 55.2%)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 내용”을 꼽은 응답이 작년 7.5%에서 27.2%로, “한국의 정치인의 일본에 대한 발언”을 꼽은 응답도 작년 4.0%에서 16.4%로, “일본의 역사문제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행동”을 꼽은 응답도 작년 3.6%에서 16.0%로 각각 증가하였다.

【도표 18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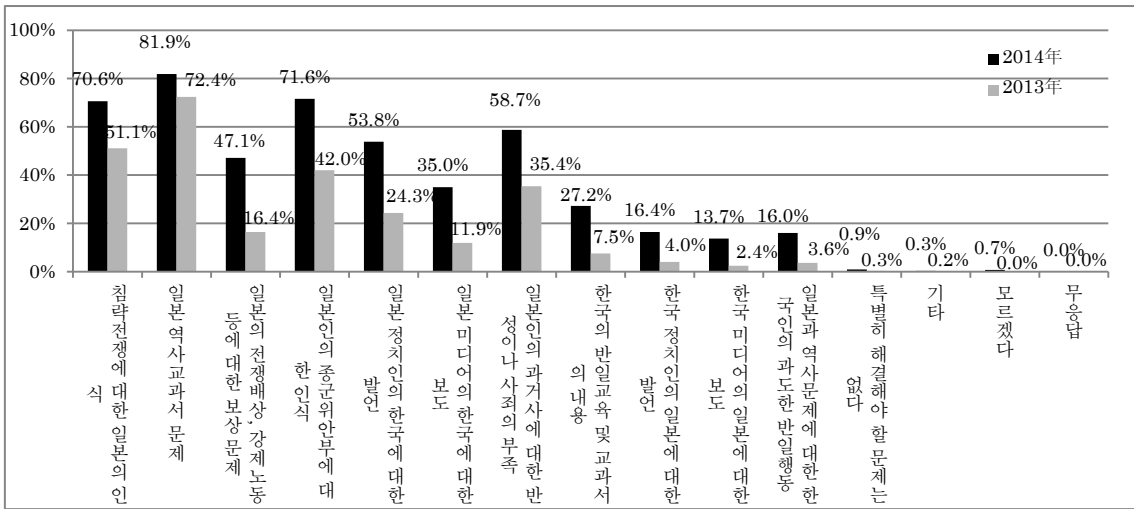


【도표19 한일의 역사문제에 관한 선결과제】 (중복응답)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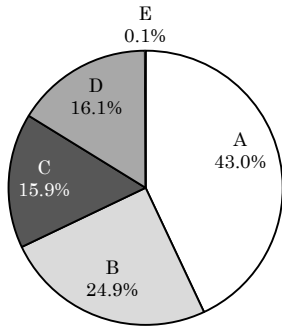
5 - 2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 한국인의 약 70%는 반대하지만, 일본인의 약 70%가 용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 하지만 한국인의 66.5%(작년 60.0%)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배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참배해도 상관 없다”는 3.1%(작년 5.2%), “개인적으로 참배하는 것은 상관 없다”는 21.8%(작년 34.4%)로 합쳐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인은 “참배해도 상관 없다”는 응답이 43.0%(작년 47.8%)로 40%를 넘었다. “개인적으로는 참배해도 상관 없다”는 응답 24.9%(작년 27.4%)를 합치면 67.9%가 참배를 용인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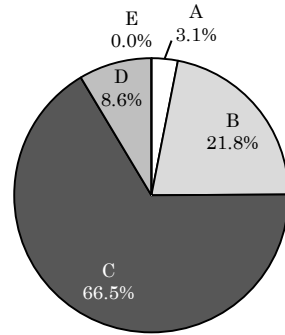
【도표 20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국민 (N=1000)



- A 참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 B 개인적으로 참배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 C 어떤 경우든 참배해서는 안된다
- D 모르겠다
- E 무응답

한국국민 (N=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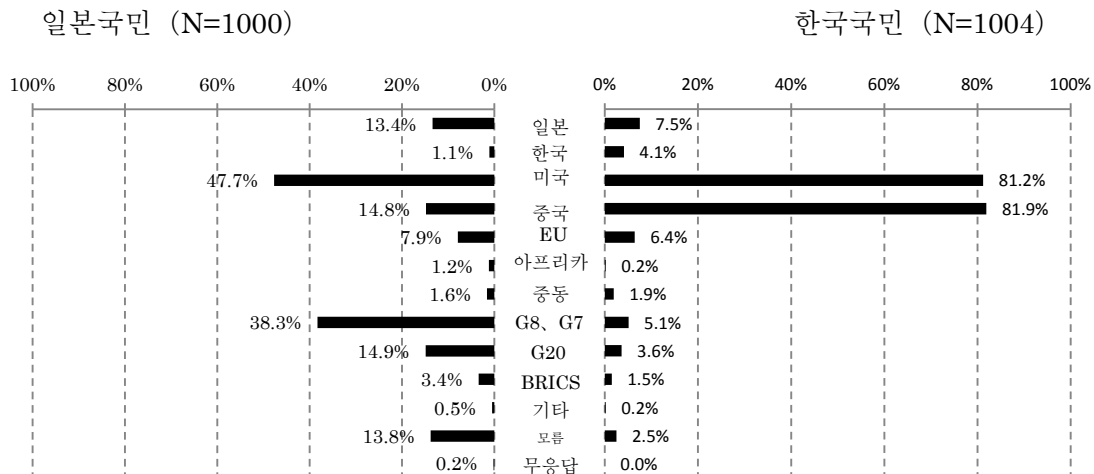
6. 세계 및 아시아와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인식

6-1. 세계를 이끌 국가와 지역

세계정치를 이끌 국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꼽고, 일본은 “미국”을 꼽아(2개 중복응답)

“앞으로의 세계정치를 리드하는 국가와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은 작년조사 때 74.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미국”이 올해도 81.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조사에서 71.7%로 2위였던 “중국”이 올해 81.9%로 증가했다. 일본인의 경우 47.7%(작년에는 51.3%)는 “미국”을 선택하여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G8 혹은 G7”가 38.3%(동 24.7%)였다. “중국”은 14.8%(동 18.7%)에 그쳤다.

【도표 21 향후 세계정치를 리드할 국가】



6-2. 2030년의 상대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은 2030년 일본 “중견국으로서 영향력이 강한 국가”, 일본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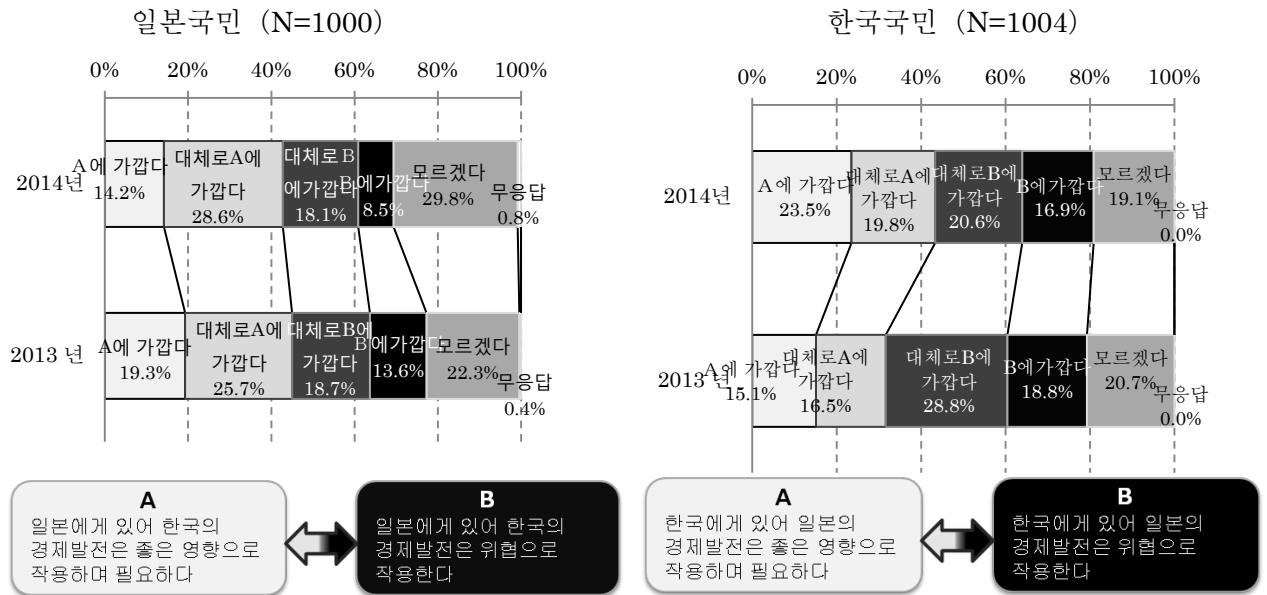
한국인은 2030년의 일본을 “중견국이지만 영향력이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9.6%(작년 29.6%)로 가장 많았다. 작년 조사 때 가장 많았던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9.3%로 작년보다 14.8%포인트 감소 했다. 일본인은 한국의 2030년의 영향력에 대해 “잘 모르겠다”가 40.8%(작년 32.8%)로 가장 많았고, “중견국이지만 영향력이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8.5%로 뒤를 이었다.

6 - 3 . 한일 경제관계

“상대국의 경제발전은 우리나라에 이익이다”는 인식이 양국의 다수여론.

한일간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일본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좋은 영향이며, 필요하다”(“대체로”도 포함, 이하 동)라 응답한 일본인은 42.8%(작년에는 45.0%)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에게도 메리트라는 인식이 많다. 한국인은 작년조사 때 “한국에게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위협이다”(“대체로”도 포함)의 견해가 반 정도의 47.6%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의 조사에서는 “좋은 영향”의 답이 43.3%로 “위협”의 37.5%를 넘어섰으며, 한국인도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했다.

【도표 22 한일의 경제관계】



6 - 4 . 10년후의 한반도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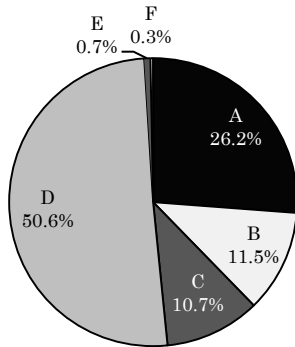
10년 후의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일양국에서 “예상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는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가 20% 후반으로 증가.

한국에서도 36.9%(작년 39.8%), 40%정도가 “예상 못함”했다고 답했고,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6.4%(작년 22.9%)로 낙관적인 반면,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은 23.2%(작년 21.7%), “북한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3.1%(작년 15.4%)에 그쳤다. 한국의 지식인 설문지에서는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처럼 과반을 넘었다. 10년후의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서 일본인은 “예상 못 함”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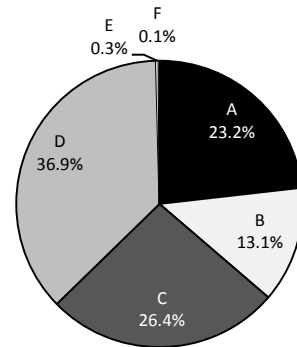
응답이 50.6%(작년 47.1%)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해,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상황 유지”(26.2%), “북한과의 대립이 격화”(작년 11.5%)를 합치면 37.7%로 비관적인 견해도 많았다.

【도표 23 10년 후의 한반도】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 A 현상유지
- B 한국과 북한의 대립 심화
- C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 D 예상할 수 없다
- E 기타
- F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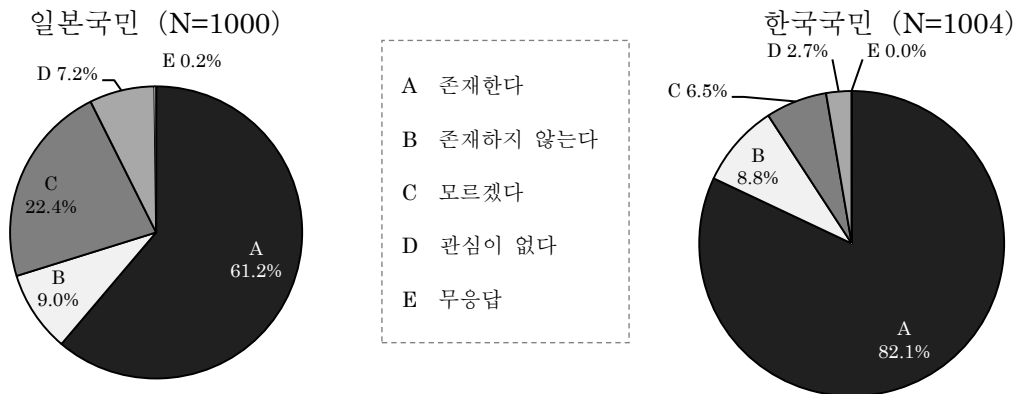
7. 영토분쟁과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에 대해서

7-1. 한일간의 영토분쟁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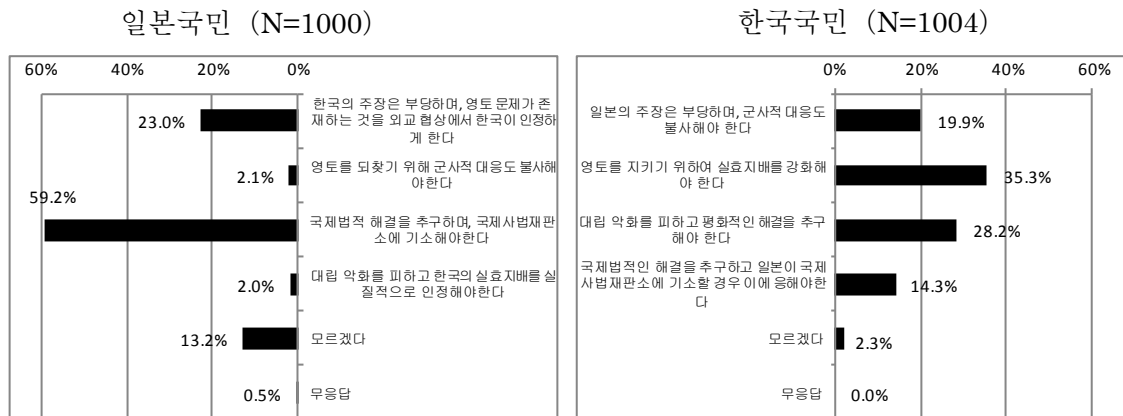
한국인의 약 80%, 일본인의 약 60%가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고 응답

한일간의 영토분쟁에 대해서 한국인의 82.1%(작년 82.7%), 일본인의 61.2%(작년 69.2%)가 양국간에게 영토분쟁이 “존재한다”고 응답. 영토분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한국에서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실효지배를 강화 해야 한다.”의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는 “국제법상의 해결을 목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가 59.2%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군사적으로 대응도 불사한다”는 응답은 한국에서는 19.9%였지만 일본에서는 2.1%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대립의 격화를 피하여 평화적 해결을 추구함”이 28.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4.3%)였다.

【도표 24 한일 간 영토분쟁의 존재】



【도표 25 영토분쟁의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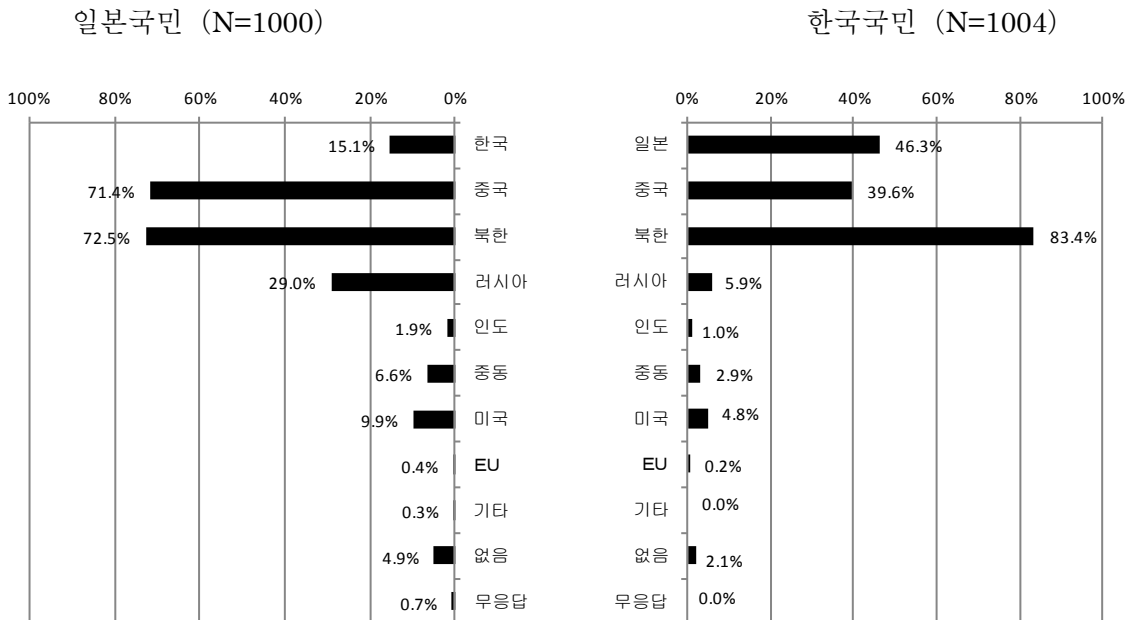
7-2. 한일 양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

한일양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으로는 “북한”을 꼽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2 위인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을 꼽은 응답이 증가했다(일본은 다수 중복응답, 한국은 2 개 중복응답). 한국에서 한일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자국의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응답은 한국인은 83.4%(작년 86.7%), 일본인은 72.5%(작년에는 78.9%)로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는 작년 조사 때 “중국”을 꼽은 응답은 북한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았지만 올해는 39.6%로 “일본”을 꼽은 응답 46.3%보다 낮았다. 일본인의 경우 “북한”에 이어서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으며, 71.4%(동 60.1%)로 작년보다 증가하여 북한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올해 한국 한국조사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국가를 두개 선택하였기 때문에(일본은 다수 선택 가능)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일본을 두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의 군사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의 응답이 57.0%. 한일간의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일본인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0.4%)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8.8%)의 두 응답을 합쳐도 10%가 채 안 된다. 한국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4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6.7%), “먼 장래에 일어날 것”(34.1%)이라고 답해 한일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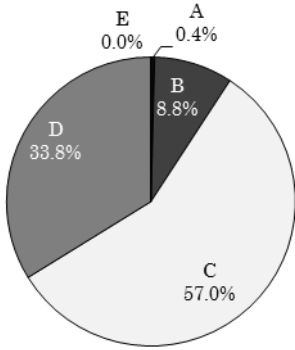
【도표 26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지역】



※일본은 있는 대로 응답, 한국은 두 개 까지 응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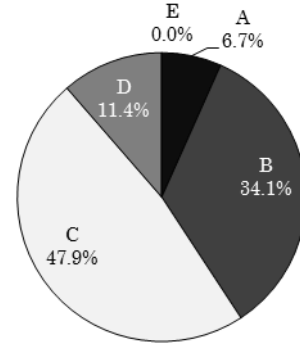
【도표 27 한일 간 군사분쟁 가능성】

일본국민 (N=1000)



- A 수년 이내에 일어날 것
- B 먼 미래에 일어날 것
- C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D 모르겠다
- E 무응답

한국국민 (N=1004)



8. 양국의 미디어 보도, 인터넷여론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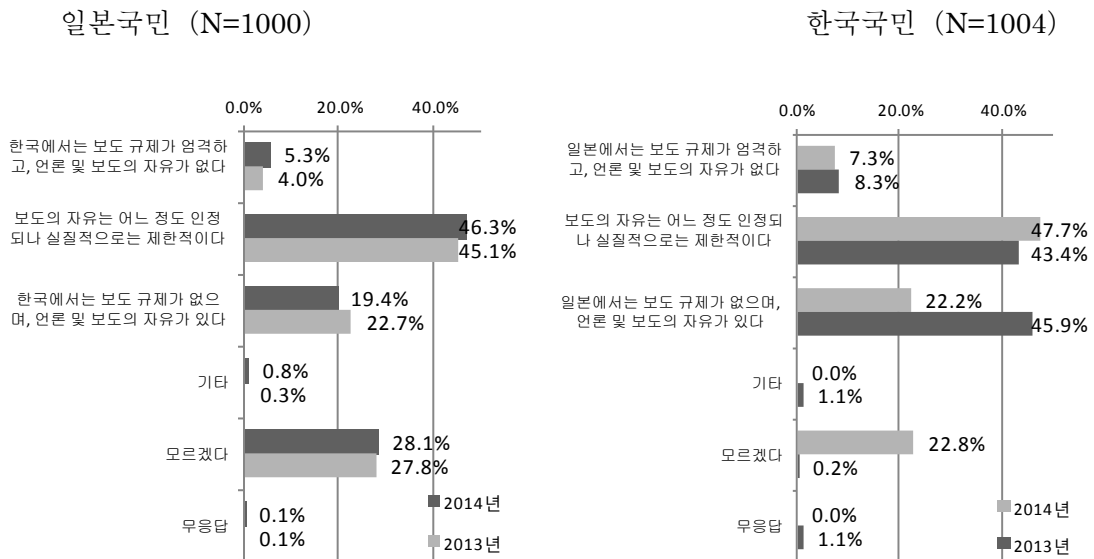
8 - 1 . 상대국에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장 되어 있는가

양국에서 상대국의 보도와 언론의 자유를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과반

일본에 대해 “언론보도의 자유는 없다”, 혹은 “실질적으로는 언론보도를 규제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은 55.0%(작년 51.7%)로 50%를 넘었다. 반면 작년 조사에서 일본에 “언론 보도의 자유는 있다”는 응답이 45.9%였는데, 올해는 22.2%로 감소 했다.

한국 국내에 “보도와 언론의 자유는 없다”, 혹은 “실질적으로 규제 한다”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51.6%(작년에는 49.1%)로 과반을 넘었다.

【도표 28 상대국 언론·보도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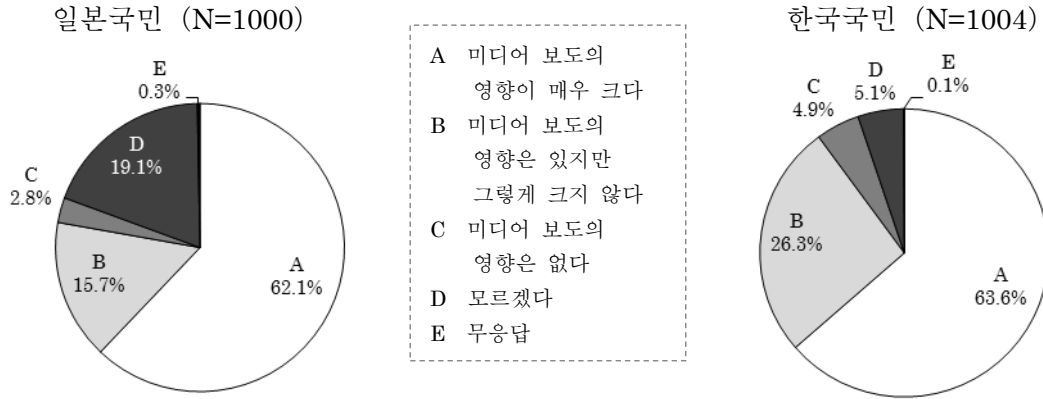


8 - 2 . (국민감정과 언론보도)

한일 양국민의 60%이상이 양국의 국민감정에 언론보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

양국의 국민감정에 “미디어보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국민의 63.6%, 일본 국민의 62.1%였다. 반대로 “미디어보도의 영향은 없다”는 인식은 한국에서 4.9%, 일본에서는 2.8%에 그쳤다.

【도표 29 국민감정과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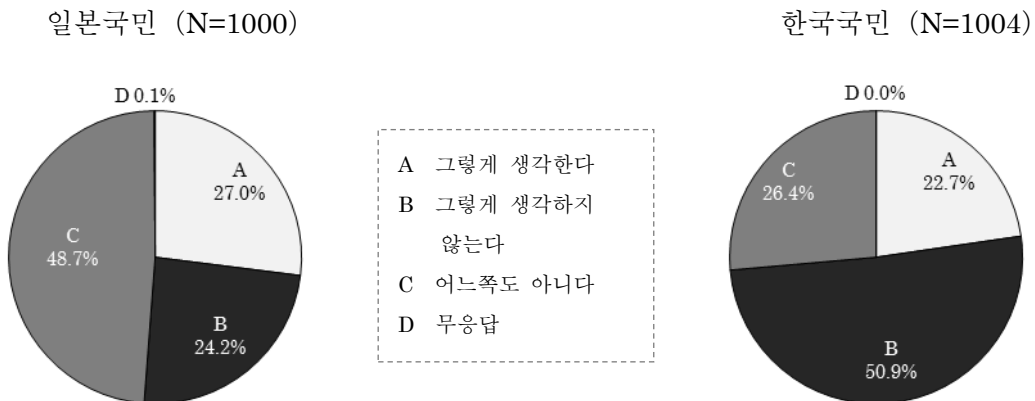


8 - 3 . 자국의 미디어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한국 국민 과반이 자국 미디어가 한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일본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수.

자국의 미디어가 한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국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다”가 50.9%(작년 41.6%)였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22.7%(작년 33.0%)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가 48.7%(작년에는 42.5%)로 가장 많았고, “그렇게 생각한다”가 27.0%(작년 31.3%)로, “그렇게 생각 하지 않다.”의 24.2%(작년 26.2%)과 비슷 하다.

【도표 30 한일관계에 대한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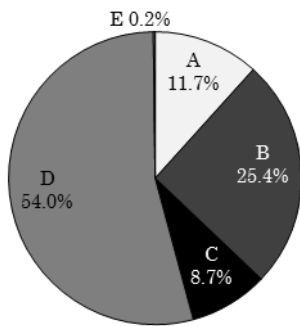
8 - 4 . 인터넷 상의 반한/반일 여론은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하나

한국에서는 상당수가 “인터넷이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일본에서는 상당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 응답함

인터넷 상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인은 “반영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50.6%(작년 45.4%)로 과반에 달했다. 하지만 35.2%(작년 39.5%)는 민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는 11.7%(작년 11.2%)%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 응답이 54.0%(작년 46.9%)로 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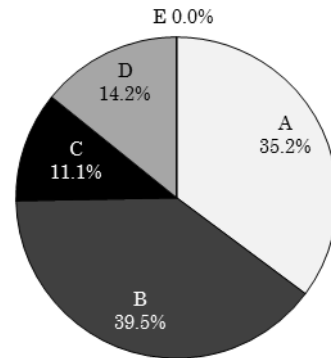
【도표 31 인터넷 상 반한/반일 게시물의 민의 반영】

일본국민 (N=1000)



- A 절절히 반영하고 있다
- B 별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 C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 D 어느 쪽도 아니다
- E 무응답

한국국민 (N=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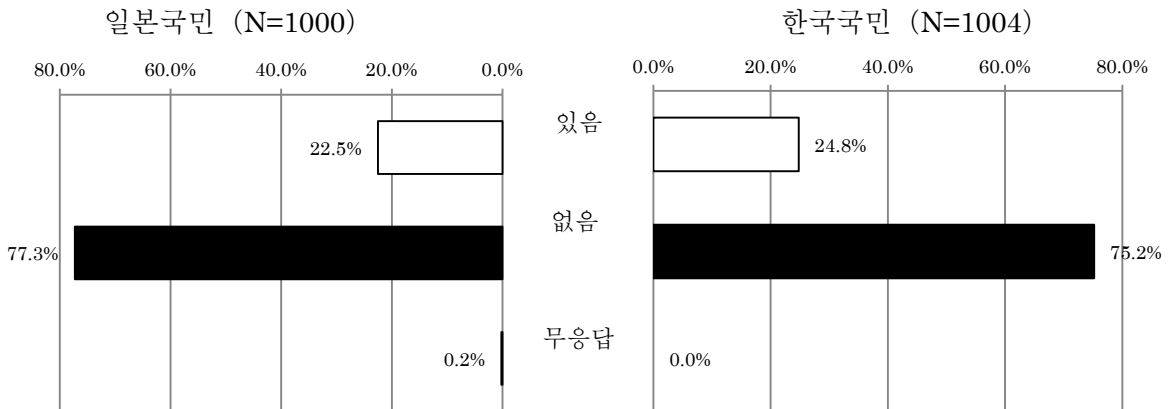
9. 양국민의 상호이해의 배경

9 - 1 . 한일 양국민의 직접교류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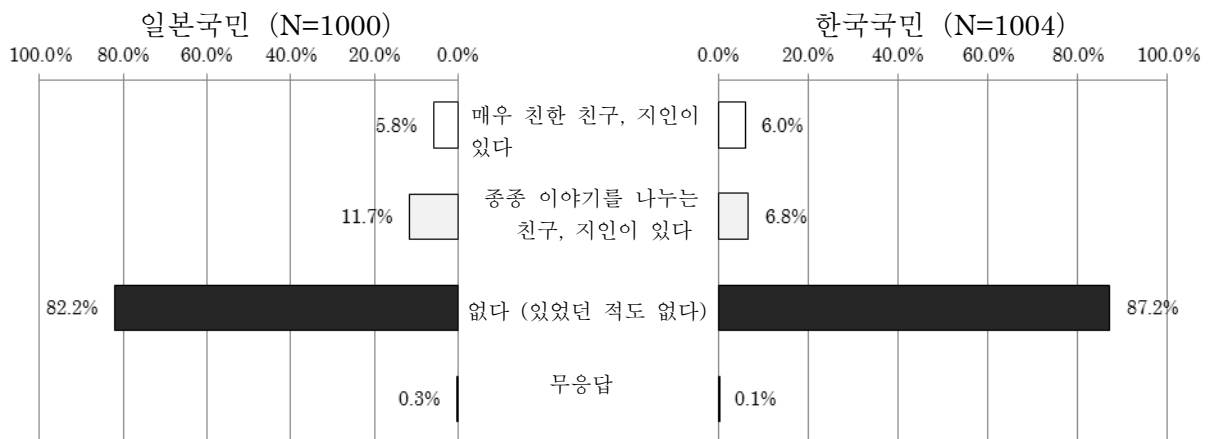
양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은 20% 수준, 양국민의 80%이상은 상대 국가에 아는 사람 없어

일본인 중에 한국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5%(작년 21.4%), 한국인도 24.8%(작년 23.8%)에 불과해, 양국 모두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양국민의 80%이상이 “상대국의 국민에 아는 사람이 없다(있던 적도 없다)”라고 응답하여, 상대국과의 직접교류의 정도가 상당히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도표32 상대국 방문 경험 여부】



【도표33 상대국에 지인, 친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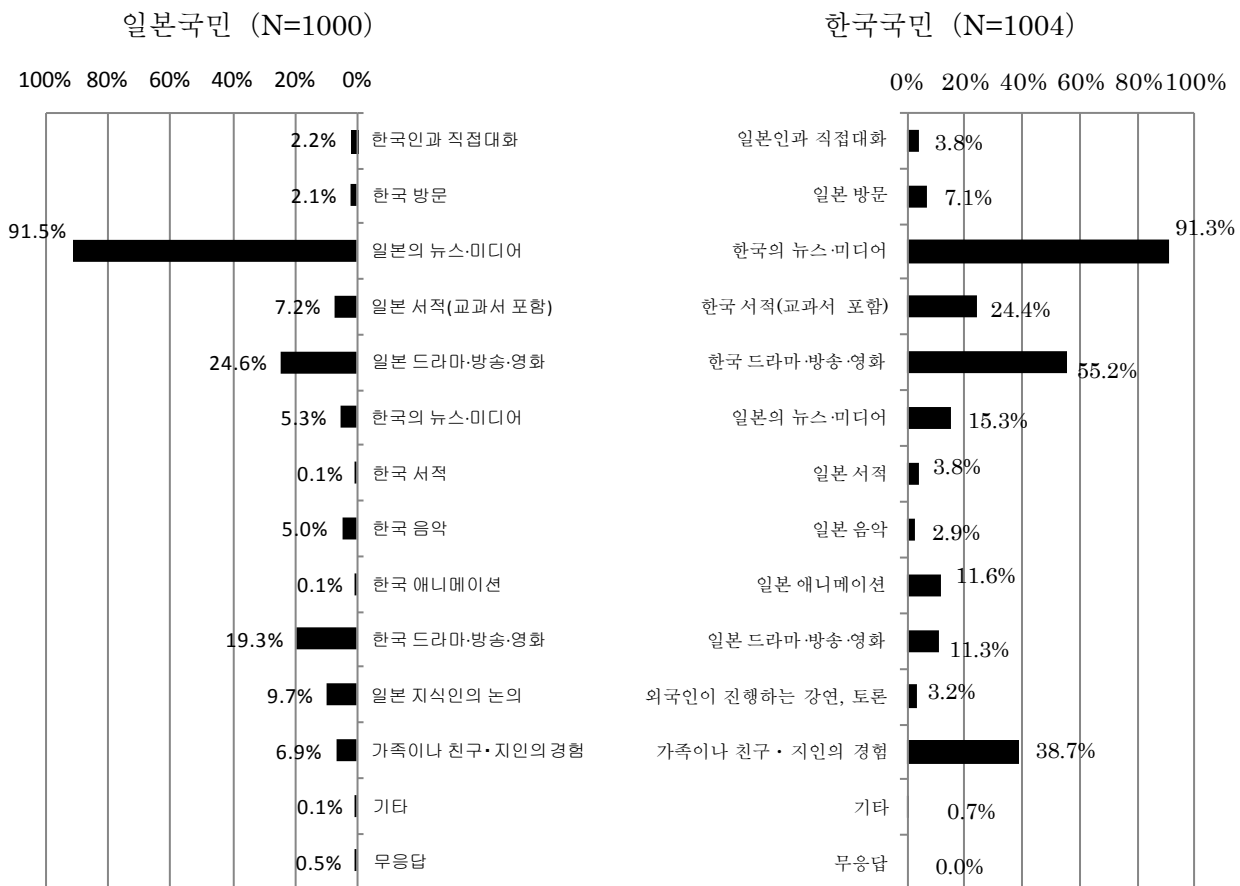


9 - 2 . 상대국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원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양국민 둘다 90%이상이 “자국의 뉴스미디어” 꼽아

양국민 둘다 상대국에 관한 정보원의 90%가 “자국의 뉴스미디어”라고 응답. 특히 “뉴스, 즉 텔레비전 뉴스”에 의존하고 있다. 기타 정보원으로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티비드라마 등 방송, 영화”를 꼽은 사람이 20%정도, 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를 선택한 사람이 50%를 넘어, “가족과 지인 등의 경험”을 선택하는 사람이 40%정도 있었다.)

【도표 34 상대국과 한일관계에 대한 정보원】



<조사문의>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담당 정한울)
 TEL : 02-2277-1683(내선 102)